한국타이어, 한-일 드리프트 대전 개최

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열리는 한국 퍼포먼스 챌린지 자동차 경주대회에서 <한국-일본 드리프트 대전>이 펼쳐진다.

한국타이어는 한국 퍼포먼스 챌린지 자동차 경주 대회 5라운드가 열리는 10월1일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한-일 드리프트 대전을 준비했다고 9월27일 밝혔다.

드리프트(Drift) 대회는 자동차가 코너에서 멋있게 미끄러지는 모습, 타이어 연기, 관중 호응도 등을 점수로 매겨 승부를 가리는 자동차 경주 종목이다. 특히, 최근 일본과 미국의 젊은 층 사이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다.

드리프트 대전을 위해 미국 포뮬러 D에 참가하고 있는 여성 드라이버 카지쿠마 히로미를 비롯해 오바타 키미히로, 가미모토 히사시 등 일본과 미국에서 활약하는 6명의 드라이버가 초청돼 한국 선수들과 한판 대결을 벌인다. 대회 방식은 8강 토너먼트로 치러지며, 2명의 선수가 동시에 출발하는 트윈 드리프트로 진행된다.

또 영화 이니셜 D에 나오는 하치로쿠 (도요타 스프린터 트레노)를 비롯해 닛산 실비아 S13, S14, 스카이라인 R324 등 드리프트 차량도 볼거리이다.

아울러 한 대에 30억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카 부가티 베이런 16.4를 비롯해 세계에 399대가 한정 판매된 25억원 상당의 엔초 페라리 2대, 17억원 상당의 마세라티 MC12 등 4대 가격이 총 100억원에 달하는 슈퍼카가 전시돼 자동차 마니아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. 부가티 베이런 16.4는 전시회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만나볼 수 있다.

<화학저널 2006/09/27>

Copyright ⓒ 2003 by CMRI 화학경제연구원